

한옥·자연음향...국악의 진수 맛보다

양림동 유희매 문화관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공연 현장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 선생이 창제한 유희매(輪回梅)는 밀랍으로 만든 매화를 일컫는다. 선생은 사시사철 유희매를 찾자리에 놓고 감상하며 차를 즐겼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골목길에 자리한 유희매 문화관을 찾아가면 광주에서 활동하는 다음 선생이 만든 유희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970년대 지어진 한옥에 문을 연 문화관에는 천연장의 LP 판이 가득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고 차도 마실 수 있다.

지난 5월의 어느 봄날 밤, 유희매 매화관에서 흥겨운 가야금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실내 공간에 편안하게 앉은 관객들은 어깨를 들쭉이며 음악을 감상했다. 또 우뚝 솟은 태산목을 비롯해 다양한 꽃이 핀 정원 마루에서 봄바람 맞으며 편안하게 관람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가 진행하는 '유희매에 스민 우리 음악' 5월 행사 풍경이다.

루트머지는 지난 4월부터 매달 한차례(두번째 주 화요일) 문화관에서 공연을 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공모한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다. 이번 공연은 무엇보다 마이크 등 음향 장비를 쓰지 않고 자연음향만을 통해 전통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즘엔 마이크 없이 연주를 듣는 건 극히 드물다. 또 화가 정강임씨가 매회 연주 컨셉에 맞는 소박한 무대를 꾸민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정원마루 걸터앉아 편안한 관람

11월까지 매월 둘째 화요일 공연

12월 해금·판소리 '수궁가' 연주

김산옥씨의 맛깔스런 진행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는 김한아(광주가야금연주단 단장)씨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와 양금 독주곡 '금강산의 노래'를 연주했으며 해금의 김민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씨가 김준영(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씨의 장단에 맞춰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들려줬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한 '해금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방아타령'도 흥을 돋웠다. 관람객들은 공연 중간 중간 추임새로 호응했고 다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관객 중에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일부러 온 사람들도 많았고, 밤마실 나온 양림동 주민들, 핫 플레이스인 양림동을 방문한 젊은 관객들도 자연스레 합류, 공연을 감상했다. 공연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관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마시고, 유희매를 감상하고, 정원을 거닐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유희매 문화관에서 공연이 진행될 건 그룹 대표 홍운진씨와 관계가 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가야금 연주회를 열었던 홍 대표는 음향장비를 쓰지 않고 생음악으로 들려주는 연주회가 참 좋았고, 한옥이라는 공간도 마음에 들어 정기적인 공연을 기획했다.

6월 공연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진행된다. '루트머지' 단원인 해금 연주자 문보라씨가 '지영희류 짧은 산조'와 김영재 곡 '계명곡'을 연주하며 소리꾼 서희선(퓨전국악 '흥타래' 단원)씨는 '수궁가' 중 '별주부와 토끼 상반',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들려준다. 장단은 김준영씨가 맡는다. 7월(10일)에는 이정숙(가야금), 김형석(대금)씨가 출연해 황병기 곡 '집향무', '최옥삼 가야금 산조'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11월까지 계속된다.

유희매 문화관을 운영하는 다음 선생은 "양림동의 한옥에서 국악공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 많은 사람들이 와주시는 것 같다"며 "편하게 차를 마시고 유희매를 감상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062-444-076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음 작가가 제작한 '유희매'



지난 5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유희매문화관에서 열린 루트머지의 '유희매에 스민 우리 음악' 공연 모습.

최진석 교수 광주서 5차례 강의 10일~7월 22일 비움박물관

철학자 최진석(서강대 명예교수) 건명원장이 광주에서 철학 강의를 진행한다.

최원장은 오는 10일부터 7월22일(오후 3시)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최진석 건명원장의 철학과 삶의 이야기-탁월한 삶, 탁월한 사유'를 진행한다.

10일 열리는 첫 강의의 주제는 '인간의 독립'이다.

이어 '불편과 예민'(17일), '창의와 은유'(24일), '진짜 인간'(7월8일), '인간, 신으로부터 벗어난 후 신이 되어가는 여정'(7월22일) 등이 예정돼 있다. '잠든 자아 잠든 세상 잠배움터'가 주최하는 이번 강의는 광주 비움박물관(전남여고 맞은편)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회당 1만원(청소년 5000원)이다.



한 중소기업가가 기부한 돈으로 서울 가회동 한옥에 문을 연 '건명원'은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을 모집해 미래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곳이며 올해 4월부터는 35세 이상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건명학관'을 새로 열었다. 문의 010-9601-818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챔버싱어즈 정기 연주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10년간 사랑의 음악회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챔버싱어즈 여성 단원들.

14년 역사의 광주챔버싱어즈는 여성합창단에서 출발, 지금은 혼성합창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정기 공연을 통해 미사곡, 성가곡, 창작가곡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여온 광주챔버싱어즈는 10여년 전부터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난치병 어린이에게 희망 더하기 사랑 나누기'를 진행, 공연 수익금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33명의 어린이에게 49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 사랑을 전하는 음악회를 연다. 제13회 광주챔버싱어즈 정기 연주회

'난치병 어린이와 사랑 나누기, 희망 더하기'가 9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박호진 지휘자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성가곡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예수 만이 열쇠', '승전가', '십자가'를 비롯해 가곡 '어느 봄날', '청산에 살리라', '고향의 봄' 등을 들려준다. 또 '시를 위한 시', '광야에서', '어린 시절로' 등을 준비했다.

또 마림바 오미정씨가 특별 출연해 '통나무 블루스', '왕벌의 비행' 등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0-5120-3256. /전은희 기자 ej6621@kwangju.co.kr

'플로잉-희망의 기도' 전

7월 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작가 12명 작품 24점 전시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은 오는 7월 1일까지 '플로잉 - 6월, 그 희망의 기도'전을 개최한다.

그림 '플로잉(Flowing)'은 광주 지역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모임으로 1995년 결성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6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4점이 전시된다.

참여작가는 김기룡, 김미영, 김정희, 김창남, 단비, 오영희, 유우수, 이기원, 이원상, 전병준, 조수옥, 조영희 등 12명으로 희망의 의미를 기록 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영희 작 'be-joyful'

현충사관리사무소 8월 31일까지 난중일기 독후감 공모전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중일기 독후감 및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난중일기 독후감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2개 부문에 걸쳐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나뉘어 진행된다. 독후감 응모자는 난중일기(한문본, 각 번역서 포함)를 읽고 난 후 소감을, 유적답사기 응모자는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를 답사한 소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전자우편(yun39@korea.kr)으로 접수하며, 응모작들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